



미 증시, 금리 급등 진정에도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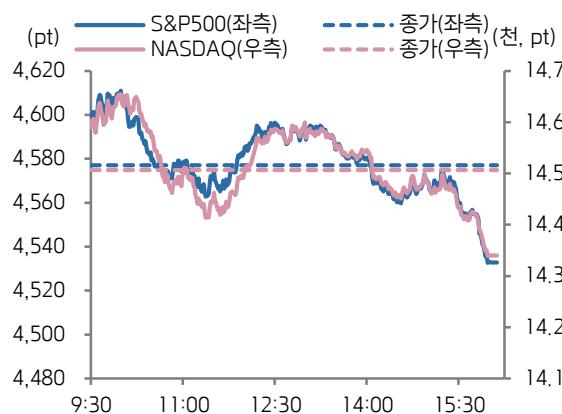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9일 (수)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및 중앙은행 긴축 불안 지속으로 하락 마감. S&P500 지수는 오전 모건스탠리, P&G 등의 긍정적인 실적 소식, 주택시장 지표 호조, 미국 장기물 금리 진정(1.83%)으로 0.5% 상승 출발. 하지만 유가 상승 압력 확대, 다음주 FOMC 경계감 등으로 투자심리 악화되면서 하락 전환. 이날 대형 기술주들은 금리 하락에 불구하고 애플(-2.1%), 테슬라(-3.4%) 등 연일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낙폭이 컸음. 방어주 성격의 필수소비재(+0.7%), 유트리티(+0.5%) 업종은 상승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확대(다우 -0.96%, S&P500 -0.97%, 나스닥 -1.15%, 러셀 2000 -1.6%).

미국 12월 주택 착공은 전월대비 1.4% 증가(전월 +8.1%), 12월 주택허가는 전월대비 9.1% 증가(전월 +3.9%)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 실적을 발표한 모건스탠리(+1.8%)와 뱅크오브아메리카(+0.4%)는 실적 서프라이즈로 모두 상승. 이중 모건스탠리는 다른 대형 은행들처럼 비용 증가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견조한 주가 흐름 보임. P&G(+3.3%)는 실적 호조(EPS 1.66 달러 vs 1.65 달러), 2022년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주가 상승. US 방코프(-7.8%)는 실적 부진 소식에 주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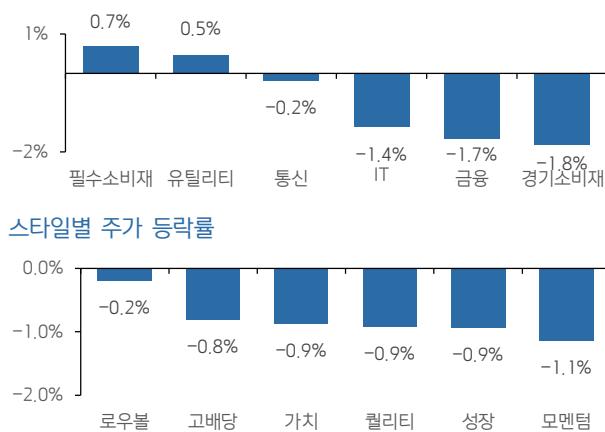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7%), 유트리티(+0.5%)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그중 경기소비재(-1.8%), 금융(-1.7%), IT(-1.4%)의 낙폭이 가장 커짐. 다른 종목별 소식들로 레나르(-4.4%), KB 홈(-3.9%), 툴 브라더스(-4.7%)는 모두 키방크의 섹터 투자의견을 중립이하로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라스베가스샌즈(+1.9%)는 UBS 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주가 상승. UBS는 마카오 카지노 규제 정정이 카지노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32.76	-0.97%	USD/KRW	1,191.45	+0.11%
NASDAQ	14,340.25	-1.15%	달러 지수	95.58	-0.16%
다우	35,028.65	-0.96%	EUR/USD	1.13	+0.18%
VIX	23.83	+4.56%	USD/CNH	6.35	-0.15%
러셀 2000	2,062.78	-1.6%	USD/JPY	114.27	-0.3%
필라. 반도체	3,612.19	-3.0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588.08	-0.44%	국고채 3년	2.067	-4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530	-0.9bp
Eurostoxx50	4,268.28	+0.25%	미국 국채 2년	1.047	+0.4bp
MSCI 전세계 지수	733.18	-1.57%	미국 국채 10년	1.847	-2.7bp
MSCI DM 지수	3,124.21	-1.6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41.58	-1.02%	WTI	86.68	+1.46%
MSCI 한국 ETF	75.83	+1.12%	금	1843.5	+1.5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9.0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경기부양 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인민은행의 LPR 금리인하 여부
2. 미국 10년물 금리 변화
3. 개인투자자들의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종료로 인한 수급 왜곡 현상 진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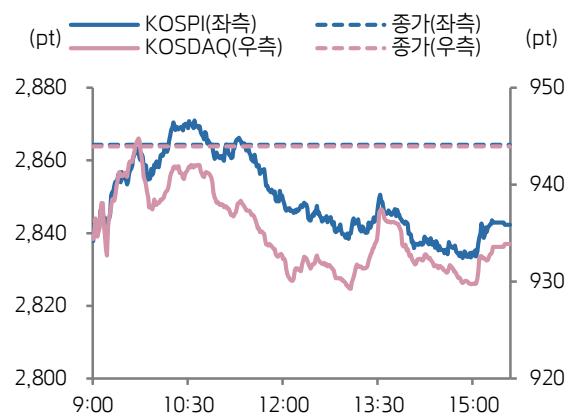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거래일에 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단기간에 1.8%대 중반까지 진입하는 등 레벨 자체 부담감이 증시에 충격을 가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12월 소비자물가(5.4%, 예상 5.2%)도 약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 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 중앙은행의 긴축 가속화가 시장 불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의 3월 50bp 금리인상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

이처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중앙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악재로서의 정책 변화들을 한번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 또한 글로벌 대장지수 성격인 나스닥 지수가 고점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등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도 투자심리 악화 요인. 이 같은 긴축 발작 현상은 1월 FOMC(25~26일) 이후에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인 긴장도 고조되고 있으므로 당분간 위험관리에 주력할 필요. 그러나 양호한 실적시즌을 보내고 있음에도 미국 성장주,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시장이 과도한 비관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시사. 과도한 것에는 되돌림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매도,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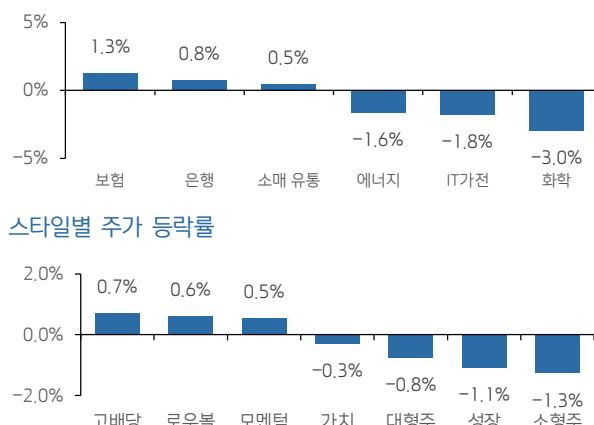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중앙은행 긴축 우려 확산,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며 장중에는 인민은행의 LPR 금리 인하 여부, 미국 금리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다만, 최근 국내 증시는 여타 증시 대비 하락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중 기술적, 저점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낙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또한 상장 직후에는 재차 수급 노이즈가 확대될 수 있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의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종료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를 감안 시 최근 해당 IPO가 왜곡시켰던 수급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지어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